

2025년까지 전북 8개 특화작목 집중 육성

2025년까지 '씨 없는 수박'의 전북지역 점유율을 현재 53%에서 60%까지 끌어올리고, 뇌혈관질환에 좋은 약재 '천마'의 생산량은 444톤에서 1,350톤까지 증대시키는 등 전북지역 농업 발전을 이룰 특화작목 육성이 본격 추진된다.

농촌진흥청(청장 허태웅)과 전북도 농업기술원(원장 박경숙)은 전북지역 농업 경쟁력 향상과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제1차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 종합계획'을 마련하고, 올해부터 5년간 808억원을 투입해 8개 특화작목을 집중 육성한다고 지난 18일 밝혔다.

농진청-전북농기원, 제1차 연구개발·육성 종합계획 씨 없는 수박·천마·파프리카 등 5년간 808억 투입

전북지역 대표 작목인 '씨 없는 수박'은 전국 재배면적의 53%(320ha)를 점유하고 있으나, 주로 고온기에 생산돼 저온기에도 안정적으로 생산하고, 노동력을 줄여주는 기술 개발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저온기 수박 생산을 위한 보온관리를 스마트 소형터널 장치와 노동력 절감 및 생산성 향상에 혁신을 가져올 수박 수경재배기술을 개발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씨 없는 수박의 전북지역 점유율을 2020년(로즈마리, 라벤더, 민트) ▲산채(고사리, 곤달비) ▲치유곤충 ▲블루베리 ▲고구마 등이며, 이 가운데 '씨 없는 수박'과 '천마'는 국가 집중육성 작목이다.

농촌진흥청과 전북도농업기술원은 앞으로 8개 작목에 대해 신품종 육성부터 고품질 생산·재배기술 개발, 가공·유통시스템 구축, 국내외 소비시장 발굴·확대까지 다각적으로 지원

한다. 전국 파프리카 재배면적(728ha)의 99%는 대안과로, 대부분 수입 종자에 의존해 국내 육성 품종의 개발·보급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전라북도농업기술원에 국내 유일의 파프리카 전문연구소를 보유한 민림 '파프리카(대형과)'는 신품종 육성 및 ICT 활용 스마트팜 재배기술 개발을 통해 국산 종자의 전국 보급률을 0.3%(보급량 7만립)에서 3%(70만립)으로 높이고, 전국 파프리카 재배농가의 소득도 950만원/10a에서 1,050만원/10a으로 향상 시키

는데 기여할 계획이다. 허브는 서구화된 식습관과 소비트렌트의 변화로 신선 허브의 이용이 늘고 있으며, 이에 맞춰 수입도 증가하는 추세다. 이에 2020년 7톤(2억9100만원)에 달하는 전국의 허브 수입물량을 스마트팜을 활용한 신선 허브 연중 생산 체계 구축을 통해 2025년에 3.5톤(1억4,500만원)으로 50% 줄여나갈 계획이다.

산채(고사리, 곤달비)의 경우 전북지역 고사리 재배농가의 소득을 1172만원/ha에서 1550만원/ha으로 끌어올리고, '치유곤충'은 치유농업법의 본격 시행에 맞춰 2020년 현재 3품종의 곤충지원을 2025년까지 6품종으로 늘리고, 다양한 맞춤형 치유농업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전북지역 치유곤충 시장 규모를 49억원에서 200억원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미국에서 들여온 품종이 대부분인 '블루베리'는 전라북도농업기술원이 국내 최초로 육성한 5품종을 전국적으로 보급해 국내 개발 품종의 전국 재배면적을 100ha까지 늘릴 계획이다. '고구마'는 가공 용도별 우량 품종 선정 및 재배기술 설정, 노동력 절감을

위한 재배법 개선 등을 통해 전북지역 생산량을 1.4톤/10a에서 1.6톤/10a으로 늘리고, 노동시간은 84시간/10a에서 70시간/10a으로 단축시킬 계획이다.

한편 농촌진흥청과 전국 9개 도는 지역별 생산기반, 연구기반, 성장잠재력 등을 고려해 총 69개의 지역특화작목을 선정하고 2025년까지 5년간 집중 육성하는 1차 종합계획을 추진한다. 특히 69개 지역특화작목 중 ▲경기선 인장/다육식물·버섯(노타리) ▲강원 옥수수·산채(산마늘, 더덕) ▲충북 포도(와인)·대추 ▲충남 인삼·구기자 ▲경북 참외·복숭아 ▲경남 양파·곤충 ▲전북 수박(씨없는 수박)·천마 ▲전남 유자·흑염소 ▲제주 당근/시트·메밀 등 각 도별 2개씩 총 18개 작목을 국가 집중육성작목으로 지정해 연구개발과 육성정책을 전폭적으로 지원한다.

허태웅 농촌진흥청장은 "앞으로 지역특화작목 집중 육성을 통해 특화작목의 시장규모화 및 수출경쟁력을 강화하고, 생산농가의 소득을 증대시켜 농업·농촌의 특화 발전과 국가 균형 발전을 이끌어낼 것"이라고 말했다. /김윤상기자



전은 JB문화공간, 가수 리아 미니콘서트 '바람이 분다' 성료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은행장 서한국)이 후원하는 JB문화공간에서 지난 15일 가수 리아의 미니콘서트 '바람이 분다'를 개최했다.

이날 공연은 방송과 공연 무대 등에서 왕성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가수 리아가 '눈물', '봄', '개성' 등 본인의 히트곡뿐만 아니라 임재범의 '고해', 무한게도의 '그대에게' 등 추억의 히트곡들을 통해 파워풀하고 화려한 보컬 실력으로 청중들을 매료시켰다. 특히 인기 드라마였던 '하늘이시여'의 OST '내 가슴에 미안해'는 관객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한편 JB문화공간에서는 모든 공연 및 행사 전에 마스크 착용 및 체온 측정, 손 소독 등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하며 진행되고 있으며, 오는 22일에 먼나라 이웃나라의 저자 이원복 교수의 인문학 특강이 29일에는 매력적인 레게음악으로 유명한 현대인디밴드 '뽀이젠즈'의 루프탑 콘서트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돼 있다.

JB문화공간의 회원 가입 및 프로그램과 대관 신청은 홈페이지(www.jbartcenter.or.kr)와 JB문화공간 담당자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회원 가입 시 동호회 대관 우대 혜택, 문화예술 활동 지원 및 다양한 문화프로그램에 무료 혹은 우선 참여, JB가 50%할인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 기타 자세한 문의는 전화(063-288-7787)로 하면 된다. /김윤상 기자

온라인 수출 화상상담 참여기업 모집

내달 4일까지... 수출유망중기·올 상반기 신청기업 우선 선정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윤종욱 이하 전북중기청)은 5월 17일부터 오는 6월 4일까지 전북 소재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2021년 온라인 수출 화상상담회 참여기업을 모집한다.

이번 행사는 코로나19로 인한 해외 전시회 취소 등 수출 중소기업의 애로가 장기화함에 따라 전북코트리와 협업을 통해, 위축된 중소기업의 해외 판로 개척 및 수출 활력을 제고하고자 비대면 방식의 수출상담회로 마련됐다.

지원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수출유망중소기업 및 2021년 상반기 수출유망중소기업 신청기업을 우선 선정한다. 다만 해외마이어 매칭이 원활하지

위해 외국어 카탈로그 등 홍보물을 보유한 업체를 대상으로 모집한다.

윤종욱 전북중기청장은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대비한 산업 육성 전략이 필요하다"며 "해외에 나가지 못하는 이 시기에 비대면 수출상담회에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수출기회를 확대해가 바란다"고 전했다.

신청·접수는 6월 4일까지이며, 전북중기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신청서를 다운받아 제출서류와 함께 이메일(kkcho@korea.kr)로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수출지원센터(063-210-6482)로 문의하면 된다. /김윤상기자



NH농협생명 전북총국은 지난 18일 서울 그레드 하얏트 호텔에서 열린 제33회 NH농협생명연도대상 시상식에서 전북 관내 8개 농·축협이 수상했다고 밝혔다.

도내 8개 농·축협, NH농협생보 연도대상 수상

- 그룹별 1위 신대인농협·운봉농협·계화농협·무진장축협
- 2위 남원·고산·흥덕농협... 전주농협, 우수학습조직부문 1위

NH농협생명 전북총국(총국장 이숙)은 지난 18일 서울 그레드 하얏트 호텔에서 열린 '제33회 NH농협생명연도대상 시상식'에서 전북 관내 8개 농·축협이 수상했다고 밝혔다.

그룹별 1위인 대상은 신대인농협(김

성주 조합장), 운봉농협(서영교 조합장), 계화농협(이석훈 조합장), 무진장축협(송계근 조합장)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그룹별 2위 수상은 남원농협(박기열 조합장), 고산농협(국영석 조합장), 흥덕농협(백영종 조합장)

이 수상했다. 또 전주농협(임인규 조합장)은 우수학습조직 부문 대상(1위) 수상의 기쁨을 누렸다.

이숙 총국장은 "코로나19로 어려운 농촌의 현실에서 값진 성과를 일궈낸 농·축협 조합원과 임직원께 감사드립니다"며 "농협생보가 농업인의 소득안정망을 구축하고 복지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NH농협은행 전북본부(본부장 장기오)는 가정의 달을 맞아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금융교육 특강을 실시한다고 지난 18일 밝혔다.

가족과 함께하는 금융교실

NH농협은행 전북본부, 초등생 대상

NH농협은행 전북본부(본부장 장기오)는 가정의 달을 맞아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금융교육 특강을 실시한다고 지난 18일 밝혔다.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이번 특강 '엄마 아빠와 함께하는 Hug Farm 금융교실'에서는 학생들이 일일 은행원이 돼 통장을 개설하는 등의 금융업무체험과 핀테크를 통한 금융사기예방교육이 진행된다. 더불어 지역 농산물 구매 체험을 통해 경제관념 및 우리 농산물에 대한 관심을 가질 수 있는 NH마켓 체험 기회도 제공한다.

지난 13, 14일에는 농협은행 전북본부 임직원 자녀 10명을 초청해 부모님의 직업을 체험해보고 청소년에게 꼭 필요한 금융교육과 우리 지역 농산물 장보기 등의 특별한 경험을 제공했다. /김윤상기자

장기오 본부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청소년들의 다양한 체험학습 기회가 줄어든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다"며 "청소년 맞춤형 금융컨텐츠 제공과 함께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철저한 방역에 민전을 기해 안전하고 효과적인 청소년 금융교육에 앞장서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농협은행은 지난 2012년부터 '행복채움금융교실'을 운영하여 학생들과 소외계층 등 찾아가는 금융교육을 제공하고 있으며, 4년 연속 1사1교 금융교육 우수 금융회사에 선정됐다. 금융교육 신청과 관련한 자세한 정보는 농협은행 청소년금융교육센터 홈페이지(http://youth.nonghyup.com)에서 확인 할 수 있다. /김윤상 기자

전은, 대전 과정동에 'JB 희망의 공부방' 오픈

상판 파손된 책상 등을 새로운 가구들로 교체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은행장 서한국)은 지난 18일 대전광역시 괴정동에 위치한 '사랑의 터' 지역아동센터에서 'JB희망의 공부방 제118호' 오픈식을 실시했다.

사랑의 터 지역아동센터는 2005년 개소한 이후 주변 임대 취약계층 아동들을 위한 방과 후 공부방으로 다양한 문화체험 활동과 학습지원 프로그램 등을 제공해 왔으나 경제적 어려움으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은행장 서한국)은 지난 18일 대전광역시 괴정동에 위치한 '사랑의 터' 지역아동센터에서 'JB희망의 공부방 제118호' 오픈식을 실시했다.

로 환경 개선이 쉽지 않아 지원 대상으로 선정됐다.

이날 오픈식에는 전북은행 이태수 본부장, 나승현 대전지점장, 대전광역시자원봉사연합회 김영태 회장, 이은경 사무처장, 사랑의 터 지역아동센터 박정기 센터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센터 개소 당시부터 15년 넘게 사용하며 번식되고 찢어진 책상 교체와 상판이 파손된 책상 등을 새로운 가구들로 교체해 쾌적한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아동들의 학습에 불편함이 없도록 지원했다. 특히, 전북은행 대전지점(지점장 나승현)에서는 아동들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쾌적한 환경을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방문과 관심을 기울이기로 약속했다.

전북은행 이태수 본부장은 "코로나19 장기화 속에서 아동들이 양질의 돌봄과 학습지 등을 받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며, 전북은행은 앞으로도 미래의 꿈나무를 키우는 사회공헌사업을 통해 금융으로 더 따뜻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김윤상 기자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노인인력개발원, 국민연금과 '시니어연금가이드' 시범 추진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전북지역본부(본부장 이해수 이하 개발원)는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용진)과 협업체 5월부터 본격적으로 '시니어연금가이드'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시니어연금가이드 시범사업은 만 60세 이상의 상담 및 사무업무 수행 역량을 갖춘 시니어를 모집·교육하고 이들을 공단 각 지사에 배치하여 기초연금·국민연금 상담 및 홍보 등 업무를 지원하게 된다.

개발원은 지난 3월 전북지역 내 5개 수행기관을 통해 시니어연금가이드 시범사업 참여자 24명을 선발했다. 선발된 시니어는 교육수료 후 5월부터 국민연금공단에서 업무를 수행 중이다. /유호성 기자

전북농기원, 가공기술 정립 경쟁력 강화 전문가 컨설팅

전북도농업기술원(원장 박경숙)은 지난 17일부터 시군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생산제품의 표준화된 가공기술 정립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문가 현장 컨설팅을 추진했다.

도내 농산물종합가공센터는 군산, 익산 등 12개 시군에 설치·운영 중에 있으며, 아이디어는 있으나 가공시설을 갖추지 못한 농업인들이 공동 가공 시설을 이용하여 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가공품 개발 및 상품화, 창업교육 및 가공기술 이전, 공동 브랜드 개발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컨설팅은 HACCP인증 의무화에 따른 식품위생, 가공기계, 가공설비화 전략, 세무·회계 등 가공센터 운영 전반에 대해 현장 애로기술을 지원한다.

또한 25일부터 농산물 가공사업 담당자 30명을 대상으로 가공기술 표준화 기초교육을 시작으로 6월 심화과정 9월 제품개발 실습 등 단계적 추진으로 가공인력의 전문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익산=정왕원 기자